

수업 목표 : 우리말과 글에 나타난 오용 현상을 인식하고 올바른 말법으로
고쳐 쓸 수 있다.

수업 내용

- 목차 : 1. 피동법 오용
2. 사동법 오용
3. 외국어 번역 표현 남용
 -일본식 번역투
 -영어식 번역투
4. 시제 오용
5. 관형형 ‘의’ 남용
6. ‘-적’ 남용
7.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가까이 놓기
8.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가까이 놓기
9. 부정확한 어휘

1. 피동법 오용

우리말은 원래 능동형입니다. 물론 우리말에도 영어 수동태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피동문은 영어 수동태 문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문장 안에서 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사람을 행동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사물이 한 문장 안에서 행동의 주체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를 사람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피동이나 능동이나 상관없이 우리말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벌에 쏘였다’라는 문장은 영어 수동태 같은 문장이지만, 우리말 어법에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기를 쏘았다’보다 더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피동접사를 붙이거나 ‘-어지다,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을 붙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 (1)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2) 서울 경기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 서울 경기 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3)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 >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 (4) 입상자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금이 주어지겠습니다.
 > 입상자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금을 주겠습니다.
- (5)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생긴다면/있다면
- (6) 6자 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7) 1920년대 우리 문학은 민족주의 문학과 계급주의 문학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 > 계급주의 문학이 대립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예는 ‘되다’ 피동형입니다. ‘되다’ 피동은 영어의 become이나 일본어의 번역투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t is thought that..., It reported that.., It is believed that 등의 번역투로 ‘생각된다, 알려졌다, 믿어진다’류의 피동법이 많아졌습니다.

- (1) 자제되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 (2) 다음은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입니다.
- (3) 유엔 총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개막합니다 / 열립니다
- (4) 1 시간 가량이 소요됩니다 > 걸립니다.
- (5) 조선 후기에 실학 사상이 대두되었다 > 대두하였다
- (6)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 > 생산하는 물건
- (7) 남북한 협상의 여건이 성숙되었다 > 성숙하였다
- (8) 시민의 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우선해야/앞서야
- (9)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10)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 (11)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건립한, 제정하고, 개정한
- (12) 동상이 건립된다 > 동상을 건립한다
- (13)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 119 구조대가 구조하였습니다.
- (14) 수입된다, 수출된다
- (15) 고위 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다음은 ‘하다’로 해야 할 말을 ‘받다’, ‘입다’, ‘당하다’와 같이 잘못 쓴 예입니다.

- (1) 을밀대는 모란봉 공원 관리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 > 모란봉 공원 관리소에
서 관리하고 있다.
- (2) 대통령이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3) 부상을 입은 환자 > 부상한 환자 / 다친 환자
- (4) 수표를 분실당하면 > 분실하면

2. 사동법 오용

다음은 사동법의 오용입니다. 시키다는 자기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행동을 하게 하는 간접 사동법인데, 말할 때는 직접 사동에서도 시키다를 쓰
는 오용이 심합니다.

- (1) 거짓말시키지 마 > 거짓말하지 마
- (2) 외화를 유출시킨 혐의이다 > 외화를 유출한 혐의이다.
- (3)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 개선해야 한다.
- (4) 아이를 교육시키다 > 아이를 교육하다
- (5)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 입건했습니다.

3. 외국어 번역 표현의 남용

개화기나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지식인이나 유학 세대들이 외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어나 영어를 직역한 말들이 우리 말 속에 자리
잡았고, 그런 말을 사용해야만 지식인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의 많
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처럼 ‘있으시기 바랍니다’는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다
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 ‘잘 부탁드립니다’는 일본어를 잘못 번역해서 쓰는
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부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이 잘 되도록, 자신에게 이롭도
록 하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우리말에서는

‘부탁을 잘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잘 돌봐 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 ‘-에 다름 아니다’라는 표현도 일본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틀림없다’는 뜻인데, 이것을 ‘-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역한 것입니다. ‘-에 틀림없다’도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이다’로 쓰면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애교가 넘치다, 원한을 사다, 운이 나쁘다, 기억이 새롭다, 궤도에 오르다, 빈축을 사다’와 같은 관용 구도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 (1) 있으시기 바랍니다
- (2) 잘 부탁드립니다
- (3) -에 다름 아니다
- (4) -에 틀림없다

청산해야 할 어법에는 영어식 어법이 더 많습니다. 가령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과 같은 표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one of the most~’의 번역투로 고쳐야 할 어법의 하나입니다. 또 It is not too much to~의 번역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take account of를 번역한 ~을 고려에 넣는다면 이것을 고려한다면으로 고쳐야 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 는 I is neccessary to~를 번역한 것이므로 ~이 필요하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5) 회의를 가지다에서처럼 영어의 have를 번역한 ‘가지다’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가지다, 모임을 가지다, 입학식을 가지다’ 등등은 모두 하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 (1)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 (2)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 (3) 이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 (4) ~할 필요가 있다
- (5) 회의를 가지다

- (1)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
 >그 사람에게(서) 잘잘못을 들은 다음,
- (2)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 가며 ..
 > 누나와 나는 할머니에게(서)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 가며 ..
- (3)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다.

- (1) ‘우리 꽃 산책’을 통하여 글의 의도를 파악하며 ...
 >‘우리 꽃 산책’을 읽고 글의 의도를 파악하며 ...
- (2)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
 >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
- (3)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 ..
 > 작가가 이 소설 속에서 말하고자 한 것
- (4) 심화 학습을 통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해 보자.
 > 심화 학습을 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해 보자.

- (1) 문자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오랜 기간을
 > 문자 언어는 필요에 따라 오랜 기간을
- (2) 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하룻동안의 ...
 > 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하룻동안의 ...
- (3) 주로 선에 의하여 단색으로 그린 그림.
 > 주로 선을 이용하여 단색으로 그린 그림.
- (4)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
 >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으로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

4. 시제 오용

시제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시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말 시제는 앞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말에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 시제가 영어식 시제처럼 직선에 앞뒤를 재어 딱딱 떨어져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말의 시제를 영어처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제 오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있었’의 남용입니다. 흔히 대과거라고 하는 ‘있었’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다든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할 때의 상황에 쓰입니다. 가령, ‘그는 공부를 못했었다’는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다’와 같이 단순과거의 의미에도 ‘있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고쳐야 하겠지요. 또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는 우리말을 영어 시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 (1) 우리는 그 집에 갔었었고, 거기서 음식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다.

(2) 그가 방에서 나왔었을 때 나를 만났다.
 > 그가 방에서 나올 때 나를 만났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로 감사의 뜻을 전할 때는 맞는 표현이지만, 지금 한 일로 감사의 뜻을 전할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학기를 마치며 하는 인사 중 ‘선생님,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래시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에 있는 ‘바라다’ ‘예상되다’는 단어 자체가 미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겠-이 필요없습니다.

- (1)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바랍니다

(2) 내일은 30도 가량으로 예상되겠습니다 > 예상됩니다

5. 관형형 ‘의’ 남용

관형격 조사 ‘의’는 개화기 때 일본어 ‘の’의 영향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활동의 여건’, ‘시민의 권리’ ‘시청률의 확대’와 같이 관형어 구실을 하는 체언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의’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간결합니다. 우리 말에서는 ‘의’가 흔히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지 “우리의 집에 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의’는 사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같은 단어는 [회이]라고 읽습니다. ‘희망’도 마찬가지로 [히망]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の’는 발음하기도 좋고, 오히려 문장을 매끄럽게 해 줍니다. 우리말과 일본말이 이렇게 다른데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듯한 ‘의’를 사용하는 것은 남의 것을 무조건 따라가려는 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きのう私は私の家のうらの私の家の畑の私の家の桃をとって食べました

→어제 나는 나의 집의 뒤의 나의 집의 밭의 나의 집의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밭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노’가 8개나 나오지만, 이 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제 나는 나의 집의 뒤의 나의 집의 밭의 나의 집의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입니다. 장난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의’만 빼면 됩니다. ‘나는 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밭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몇 단어로 압축하려고 ‘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을 경제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너무 압축이 심해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장은 듣는 이나 읽는 이가 여러 번 곱씹어야 겨우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 오히려 ‘비경제적인 문장’입니다.

다음 예들을 한번 봅시다.

(1) 서로의 안부를 묻다 > 서로 안부

(2)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 납세 의무

- (3) 그의 글의 최대의 장점은 > 그의 글 최대의 장점은
- (4) 김소월의 작품에는 > 김소월 작품
- (5) 우리 모두의 이름을 쓸 수 있다 > 우리 모두 이름
- (6)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행사했는지 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1) 서울시장과와의 면담 > 서울 시장과 면담
- (2)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 이슬람 문화권과 활발한 교류를 해야 한다.
- (3) 전통 문화와의 만남 > 전통문화와 만남
- (4)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앞으로 귀추가
- (5)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 새로운 체제로
- (6) 과거로의 여행 > 과거로 여행
- (7) 자유에의 교육 > 자유의 교육, 자유를 위한 교육
- (8) 남한에서의 삶 > 남한에서 (사는 것이)
- (9) 삼청교육대에서의 악몽 >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 (10)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자세 > 전문 음악인의 자세

6. ‘-적’ 남용

-적은 한자어 뒤에 붙어서 그 성질을 띠거나 그 상태로 되거나 그에 관계되거나 하는 뜻을 나타낸다. 즉 ‘문학적’이라는 말은 ‘문학에 관계되는’의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적’이 한자어가 아닌 몸, 마음 같은 고유어와 어울려 ‘마음적’, ‘몸적’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적’이 체언을 관형어, 형용사, 부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형태이고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말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있고 용언의 관형사형, 부사형 어미 등이 풍부해서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적’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어 말고는 풀어쓰는 좋습니다.

7.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가까이 놓기

우리말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다른 말을 꾸며 주면서 문장을 확장합니다. 관형

어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 줄 때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놓여서 관형어가 어떤 말을 꾸미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새 책, 헌 책’을 보면 ‘새’와 ‘헌’이 그 다음에 오는 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부사어는 어느 특정한 말을 꾸며 주면서도 놓이는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문장에서 ‘다시’는 ‘돌아갔다’를 꾸며주고 있지만 아무 곳이나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에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피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수식어가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오거나 여러 수식어가 한 단어를 꾸며 줄 때도 수식-피수식의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 (1) 자동 커피 판매기 > 커피 자동 판매기
- (2) 최근 법원의 보수적 분위기와 관련이 짙다 >
법원의 보수적인 최근 분위기와 관련이 짙다
- (3) 이런 경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
경찰의 이런 주장은 전혀

8. 주어, 목적어를 서술어 가까이 붙여 놓기

전체 문장 주어부가 서술어와 멀리 떨어지면 어느 주어가 어느 서술어와 호응하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 문장을 여러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 문장은 여러 번 읽고 뜻을 새기거나 글쓰기가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서술어와 멀리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흘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를 많이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흘문장일 때보다는 겹문장일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주어가 나오고 ‘짧은 문장’을 안고 맨 끝에 서술어를 붙이니까, 전체 주어부와 서술어가 멀어집니다. 다음 예들을 봅시다.

- (1) 우리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 (2) 공원은 시민들이 아직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 갈 줄 몰라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시민들이 아직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 갈 줄 몰라서, 공원은

(3) 우리는 회사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 우리는 최선을 다해 회사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9. 부정확한 어휘 사용

언어 생활에서는 정확한 단어가 쓰이지 않고 비슷한 단어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맨발 벗고 뛴다’는 ‘양말 벗고’나 ‘맨발로’가 맞으며 ‘발자국 소리가 난다’는 발자국이 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발걸음 소리’가 맞을 것입니다. 또 ‘도둑을 지키는 개’도 ‘집을 지키는 개’가 맞겠지요.

이에 해당하는 예들을 살펴봅시다.

열쇠가 안 열린다 > 문이 안 열린다

넓이뛰기 > 멀리뛰기

활 쏘다 > 화살 쏘다

극장구경가다 > 영화구경가다

한국 최대의 실학자 > 한국 최고의

영향을 미치다 > 영향을 끼치다

모금액이 너무 작아 > 적어

체중을 빼다 > 체중을 줄이다, 살을 빼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 끼쳐

사람을 실은 버스가 > 태운